

朴대통령, 호남에 팔 벌리다

광주시민 200명 포함 U대회 주역 450명 청와대 오찬 초청
대규모 초청 사상 처음...메르스 등 '악재' 속 성공 개최 격려

광주시민 200명을 포함해 2015광주세계 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 성공 개최의 주역 450명이 청와대 오찬행사에 초청됐다. 청와대가 단일대회 유공으로 광주시민 수백명을 초청한 것은 역대 첫 사례로, '진호 남 감사패티'를 통해 호남지역 해소 의지를 밝히고 '저비용·고효율·친환경'으로 치러진 광주 U대회의 성공 노후를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북한 불참, 태풍 등 '3대 악재(惡材)'속에서도 전세계 청년 1만 3000여명을 초청해 '나눔과 배려'의 광주 정신으로 메르스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여낸 것에 대한 감사의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막을 내린 제28회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단과 관계자 등이 23일 청와대 초청 오찬 행사에 참석한다. 초청 오찬 참석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탠 광주시와 조직위,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등 광주시민 200명을 비롯한 사상 첫 종합 1위의 쾌거를 달성한 선수와 임원, 체육회 관계자 250명 등 총 450명이다. 광주를 메르스 정정지역으로 유지해 U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병원 관계자와 대회기간 교통 통제 등 불편을 참아준 화정동 선수촌 인근 주민대표 등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행사는 대회 참가결과 보고와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물 시청, 선수와 자원봉사자 소감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들어 1월 27일 광주 창조혁신센터 개소식, 4월 1일 KTX호남 선 개통식, 7월 3일 광주 U대회 개최식 등 6개월만에 3차례나 광주를 방문했다. 올 가을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 참석자 광주를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6개월 만에 특정지역을 3차례나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지난 3일 U대회 개최식에서는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행사를 관람하기도 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박대통령은 단기간 동안 공식행사 참석차 광주를 가장 자주 방문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듯하다"면서 "특히 이번 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한 대규모 초청 행사는 '호남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알립니다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2011년 총동부 최고상 이시욱(당시 매곡초 5) 작 '우아한 공작'

8월 13~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2 전시실

올해는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가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광주일보는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돌아보는 기념 전시회를 오는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10여년간 미술·작문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또 공모를 통해 최고상 출신 대학생 작품과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작가의 작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작품 전시를 희망하는 분은 7월 30일까지 광주일보사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광주일보사 문화사 부문의 최고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광주일보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광주 지방세 법인 1위

2위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 두 기업이 전체 40% 차지

광주에서 가장 많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내는 기업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2위였다. 두 기업은 광주시가 거둬들이는 법인 소득세의 40%가량을 차지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1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시한인 4월 말까지 5개 자치구에 납부한 기업들의 법인 지방소득세는 1145억원(1만7786건)으로 집계됐다. 납부액 기준 1위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으로, 전체 25.6%에 이르는 293억원을 납부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가장 많은 법인 소득세를 낸 이유는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장 단위별로 면적과 인원수에 비례해서 납부하기 때문이다. 생활가전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에어컨과 세탁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등 소형가전 등을 생산하고 있다. 광주사업장에서는 TV나 휴대폰은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 전체 매출로 법인 소득세를 내는 만큼, 이들 제품도 광주시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2위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2.2%의 세율을 적용해 모두 150억원을 법인 소득세로 부담했다. 스포티지R과 쏘울, 카렌스, 봉고트럭 등이 주력 생산 차종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규모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보다 크지만 기업 전체 매출이 낮아 법인 소득세 납부액도 삼성전자에 비해 적었다. 이외에도 삼성생명광주, 롯데백화점 광주점, 금호타이어, 동희하이테크, 연호엔에스, 한국은행, KT&G 등도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소득세는 11개 지방세 중 취득세와 재산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개인 납부자가 많은 취득세와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납부가 많아 지역 경제 발전과 기반 마련에 기업 납세가 끼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척도로 쓰인다. 한편, 레저세와 지방교육세의 경우 한국마사회 광주지사가 23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화상 경마장을 이용하는 경마팬들이 마권 구매액의 10%를 레저세로 내는 점이 반영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초록 숲 속 오케스트라 화음 22일 오후 화순 동면 광주학생교육원에서 음악캠프에 참여한 송의중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녹음이 우거진 숲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회의원 선거구 19개 유지한다

새정치, 선거구획정 방안

한편, 곡성과 구례가 분리된다면 전남의 선거구는 일대 지방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곡성·구례·담양·장성 등의 선거구가 생겨나고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고흥·보성, 무안·신안인 연접 시군과 합쳐지면서 연쇄적인 지역구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은 22일 "1개의 자치구시·군이 1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이룰 때는 다른 자치구시·군을 합치지 않기로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광양·구례에서 구례가, 순천·곡성에서 곡성이 분리되게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특별조항으로 1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이 독립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이룰 수 없을 때 연접한 자치구시·군과 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광주 동구의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적용될 경우, 경북 지역 의석수가 두 석 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인구부족 동구, 남·북구로 통합 후 다시 분리
전남...곡성·구례, 순천·광양서 분리 인근 지역구로

누구와도 닮지말라. The CLA-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 Tel. 062)226-0001

CLA 200 CDI 2,143cc 1,560kg, 7G-DCT 복합연비 18.0km/ℓ (도심연비: 15.5km/ℓ, 고속도로연비: 22.5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07g/km
CLA 250 4MATIC 1,991cc 1,530kg, 7G-DCT 복합연비 11.3km/ℓ (도심연비: 9.9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56g/km
CLA 45 AMG 4MATIC 1,991cc 1,630kg, AMG SPEEDSHIFT DCT 7speed 복합연비 10.6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